

## 新羅(신라)와 耽羅(탐라)- (하)

### 1. 남극대륙이 AUSTRALIS(남양)였다.

현재 AUSTRALIA하면 호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호주라는 명칭이나 AUSTRALIA라는 지명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호주를 의미하는 AUSTRALIA는 원래 AUSTRALIS로 현재의 세배크기였던 남극대륙을 의미하였습니다. (1)아프리카, (2)남미, (3)남극대륙으로 AUSTRALIS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531 Orontius Fine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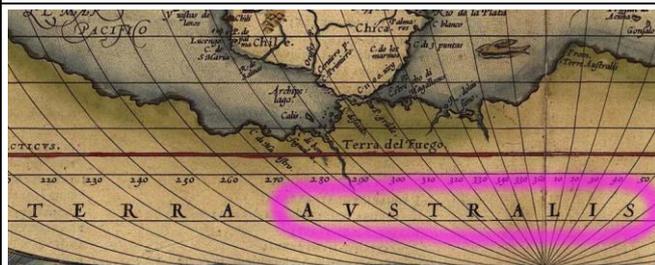
<http://www.loc.gov>



1534 Orontius Fineus



1551 Orontius Fineus



1570 Abraham Ortelius



1596/ Venice/Giovanni Antonio Mag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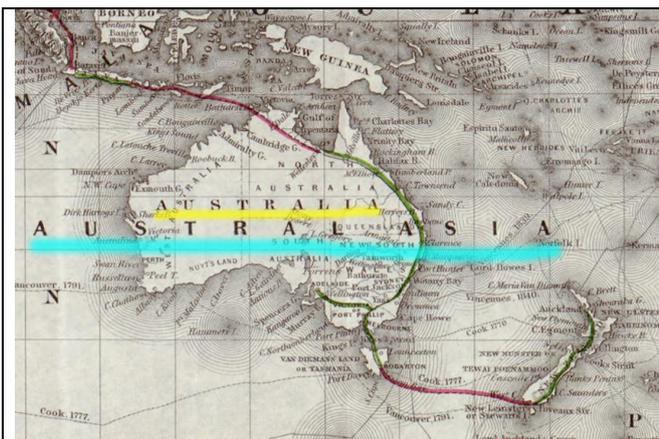
TERRA AUSTRALIS는 현재의 세배 크기였던 남극대륙의 지명으로 남쪽의 대륙(땅)이라 하겠습니다.

## 2. 호주는 남양이다.

TERRA AUSTRALIS(탐라, 남극대륙)가 17세기 후반 이후에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에 잠기면서 많은 섬들이 만들어 지며 해당지역은 AUSTRALASIA로 南洋(남양, 남쪽의 바다)이 되며 탐라가 바다에 잠기며 만들어진 호주는 AUSTRALIA란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866 Philadelphia/ Mitchell, Samuel Augustus



1855 New York/ J.H. Colton



1884 Philadelphia/ Mitchell, Samuel Augus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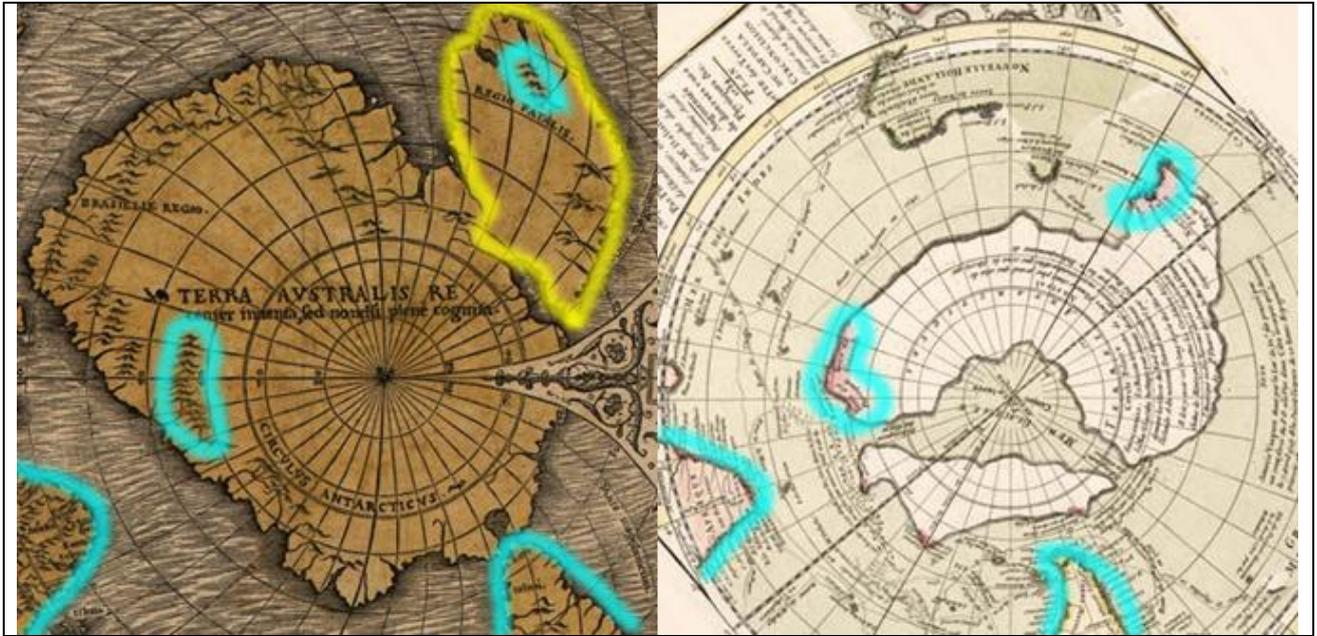
AUSTRALASIA는 南洋(남양, 남쪽의 바다)이며 땅으로써의 남양은 AUSTRALIA인 호주를 의미합니다.

구한말 고종황제시절 구라파에서 온 백인들에게 빌려준 COREA 남양이며 그래서 아시아인 호주에서 백인들이 선진국으로 주인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이라도 빌려간 땅은 사과와 함께 이자까지 쳐서 돌려 줘야 할 것입니다. 빌려준 동국조선의 후손들인 KOREA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3. PATARIS는 바다에 가라앉았다.

탐라(남극대륙)는 17세기 후반부터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들이 점점 바다에 잠기게 되었을 것이며 東國朝鮮(동국조선) 全羅道(전라도) 濟州島(제주도)로 보이는 PATARIS지역도 저지대가 침수되어 대부분의 육지가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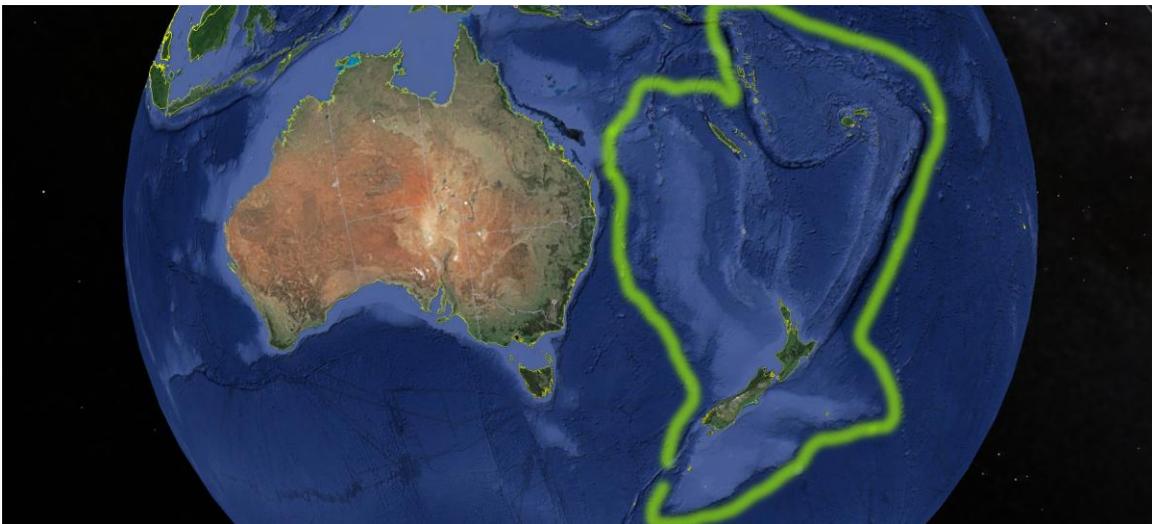
아래 지도들을 보면 (우)1757년경 남극대륙의 많은 부분이 바다에 잠겼으며 호주가 분리되었지만 뉴질랜드는 남극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번 16세기 남극은 세배의 크기였다 참고)



1531 Orontius Fineus <http://www.loc.gov>

1757 Buache Philippe <http://www.loc.gov>

수많은 사람들이 대륙침몰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조상님들께서는 사시던 거대한 땅이 바다에 잠겨서 우리가 여기에 살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승하셨을 것입니다. 세계사조작을 시행한 자들은 남극대륙과 여러 땅들을 빼앗고 그 후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모르도록 하기 위해 해수면상승의 진실을 감추려 아틀란티스와 뮤대륙의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퍼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조차 16세기에 태평양에 거대한 대륙인 PATARIS가 사라진 것은 몰라도 영화에 나온 Atlantis는 아는 것이겠습니까. 몇백년 전도 모르면서 만몇천년 전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현실입니다.



뉴질랜드 근처 PATARIS지역은 수심이 낮으면서 평평한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 4. PATARIS를 표시한 지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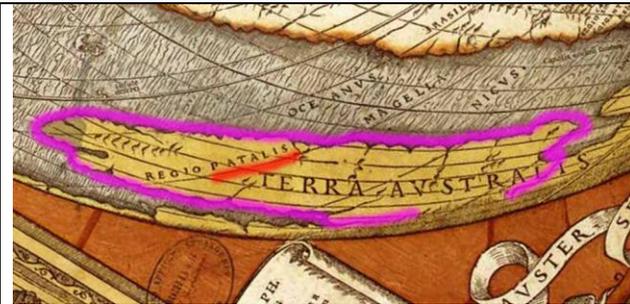
PATARIS는 제주이전에 탐라의 지명들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탐라국(耽羅國, 기원전 57년~ 1402년)은 제주도의 왕국이었다. 백제, 신라, 고려에 복속되었다가, 15세기 초반에 조선에 완전 병합되었다. 탐모라국(耽牟羅國) 또는 섭라(涉羅), **탁라**(毛羅), 탐모라(耽牟羅), **담라**(擔羅)라고도 지칭되었으며, 《삼국지》 동이전에서는 주호(州胡)라고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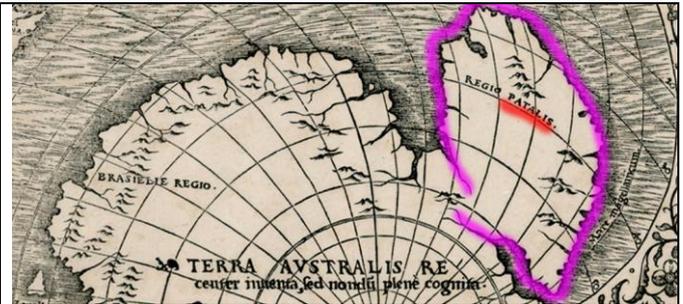
PATARIS는 파타리스로 p를 묵음으로 발음하면 타리, 타리스, 타레스, 탈리스, 탈해스, 탈이스, 탈히스, 다리스, 다리 등 탈해 이사금의 탈해와 비슷하며 담라, 탁라 와도 비슷합니다.

음운학은 조예가 없으니 넘어 가겠습니다. ^^

현재의 뉴질랜드 주위로 만리에 가까운 땅인 PATARIS지역을 표시한 지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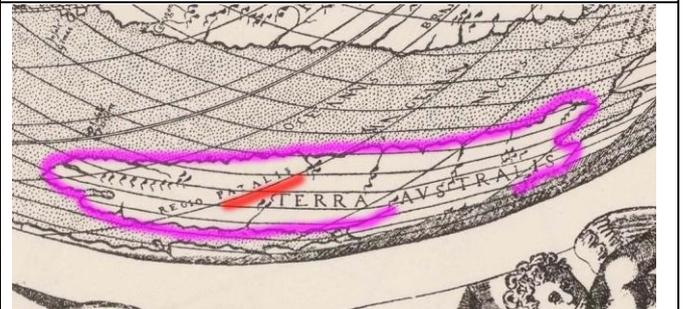
1534 Paris / Orontius Fineus



1540 Paris / Orontius Fine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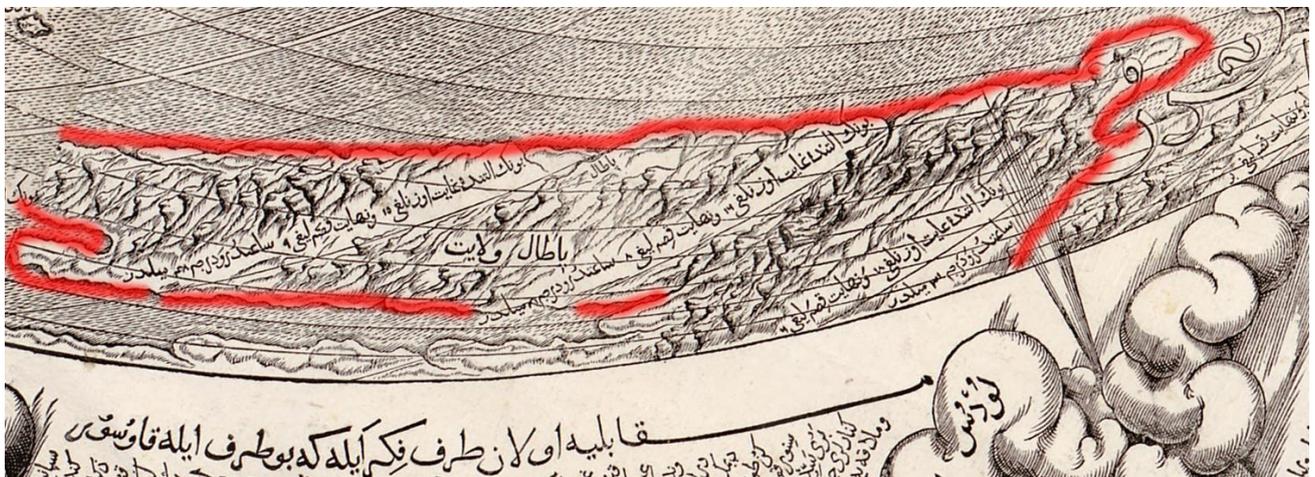


1551 Paris / Orontius Fineus



1566 Paris / Orontius Fineus

아래지도는 16세기에 제작된 피나우스지도를 바탕으로 16세기에 Hacı Ahmed가 그린 지도를 1795년에 베니스에 Pinelli가 제작했다고 하는 지도로 동시기 피나우스의 지형보다 18세기의 고지도들과 더 비슷하게 그려진 지도로 이 지도에도 PATARIS지역은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석되시는 분은 해석 요함)



1795 Hacı Ah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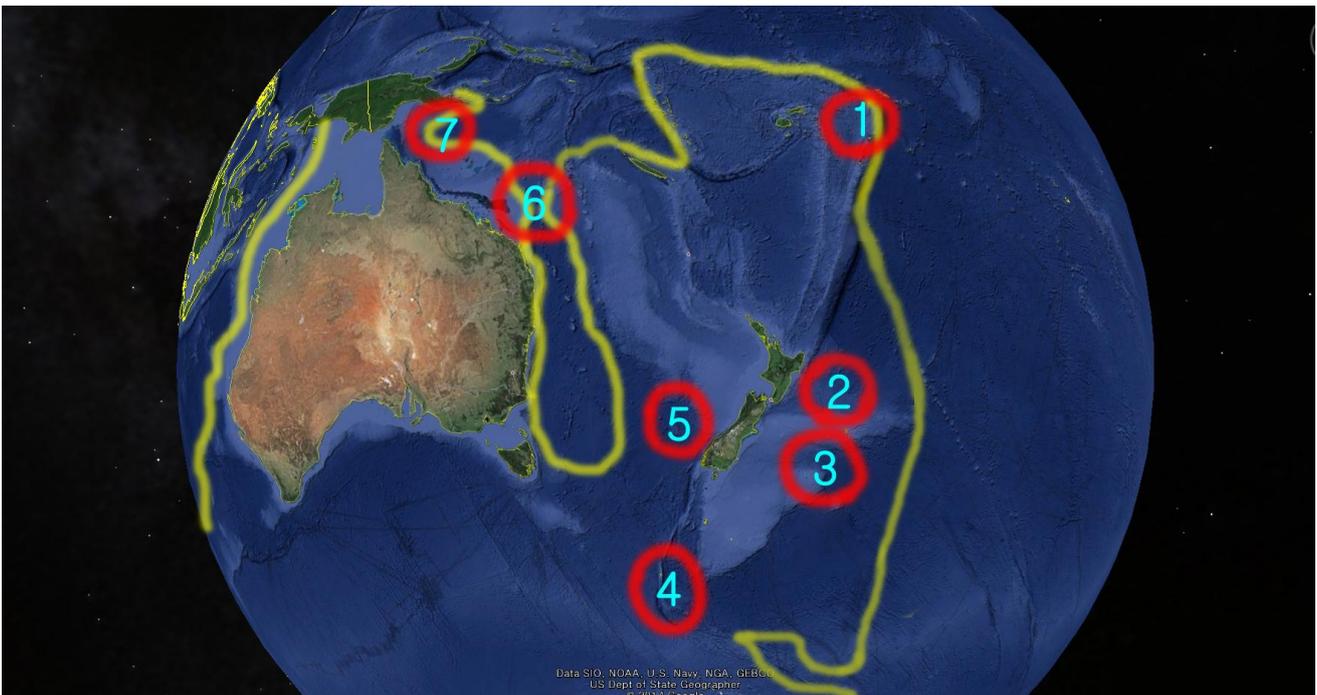
<http://www.loc.gov>

## 5. PATARIS지역 육지의 흔적들



1531 Orontius Fineus <http://www.loc.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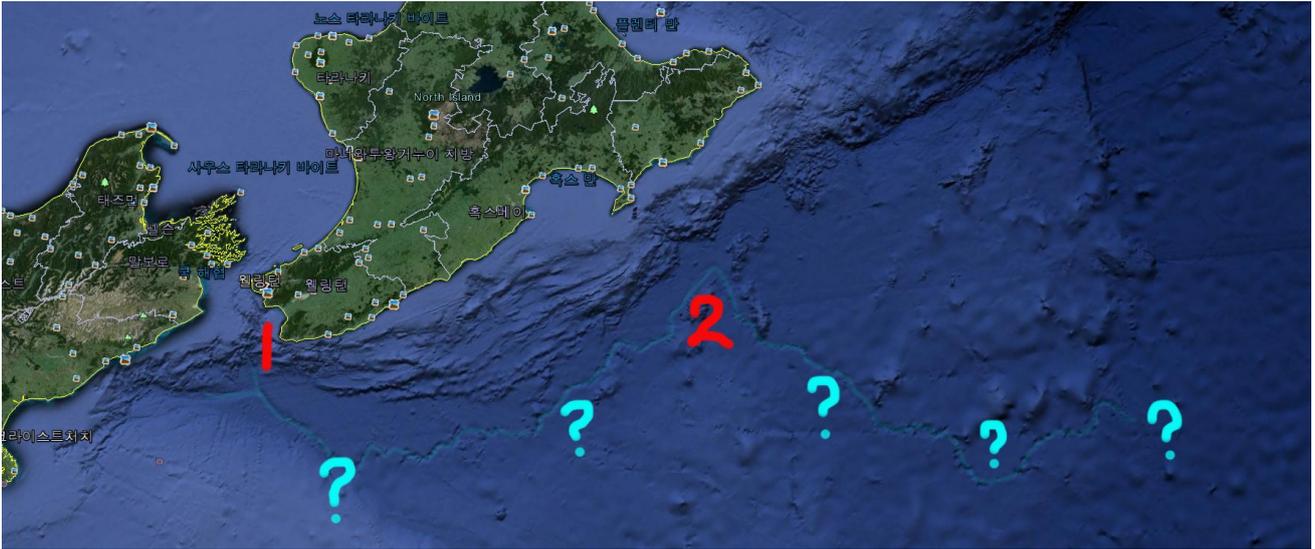
PATARIS는 뉴질랜드 주위로 수심이 낮은 지역들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지역도 지구의 다른 지역들처럼 자세히 볼수 없도록 대부분 지역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이나 자세히 보다 보면 여러 곳에서 육지의 흔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지의 흔적이 너무 많으니 강줄기들이 매우 크게 있는 곳으로 몇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 6. 뉴질랜드의 강줄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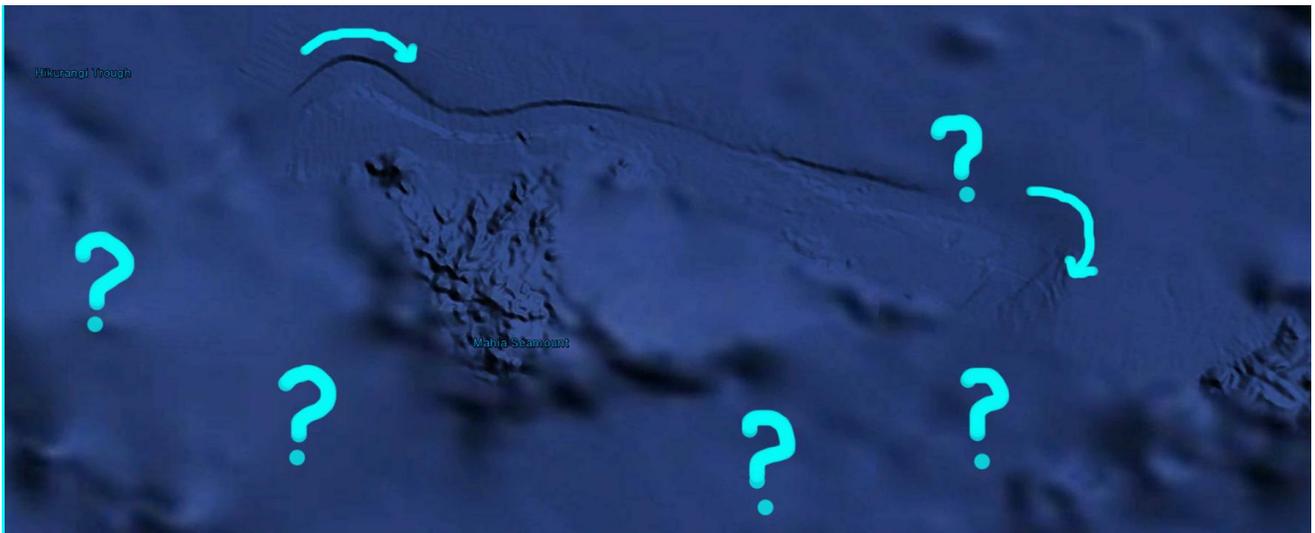
2번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사이의 쿡해협을 보면 이천리이상 흘러가는 커다란 강줄기를 보게 됩니다.



보면 중간중간이 (?)볼 수 없게 막혀 있지만 1번지역을 보면 한마리 용처럼 휘어진 강줄기를 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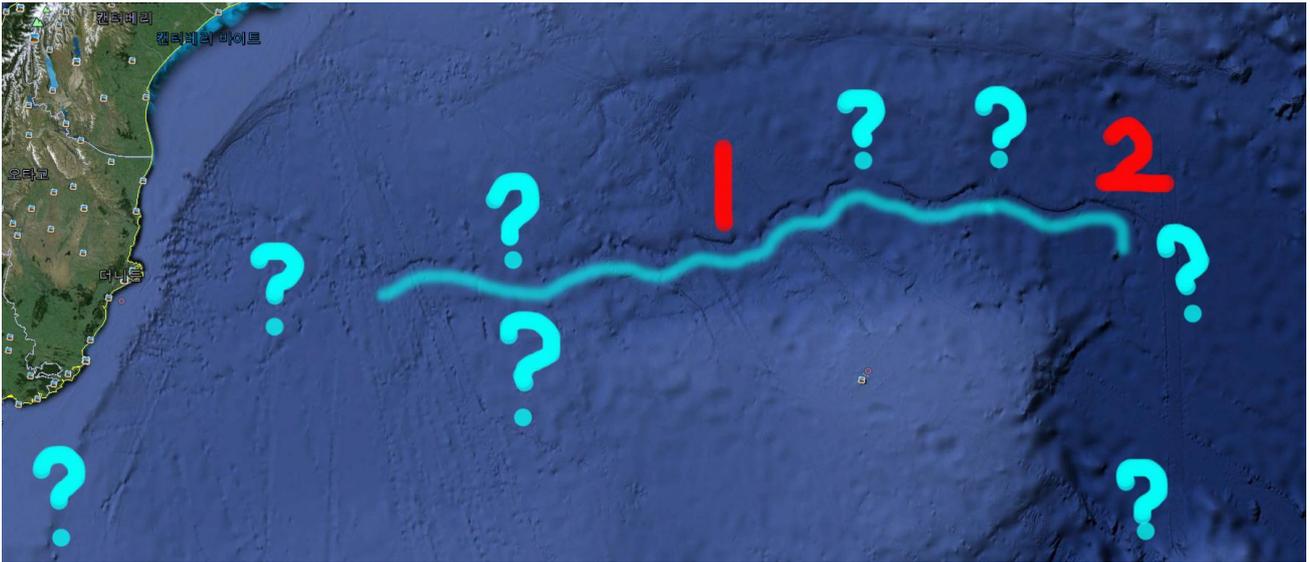


막혀있는 중간 중간에 폭이 3km가 되는 깊이 않지만 정말 커다란 강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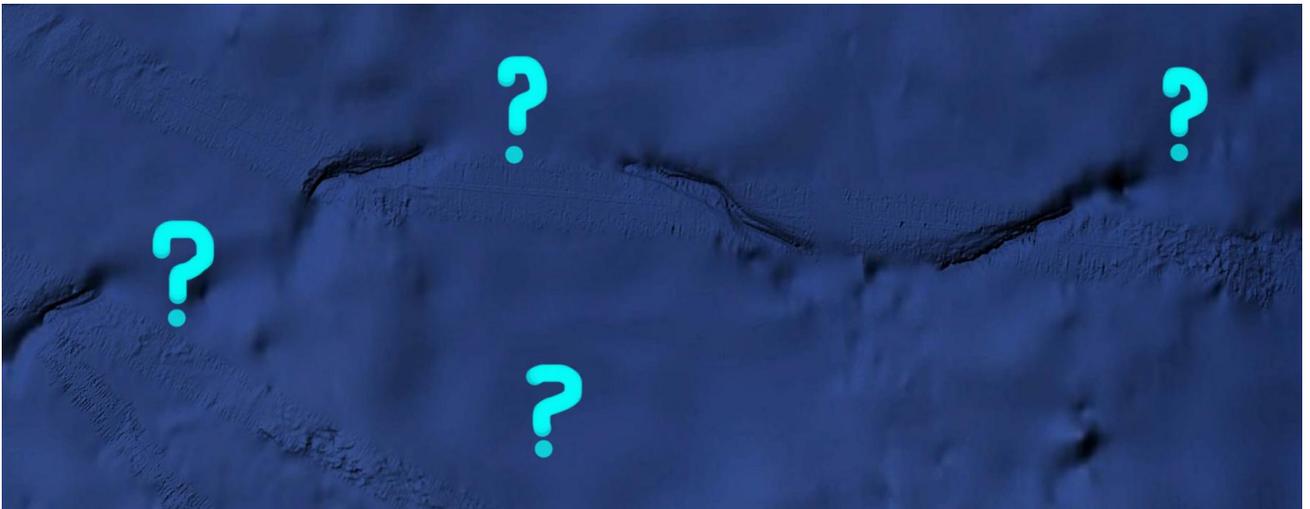


바다엔 강이 없으며 이러한 흔적은 육지의 강이 바다에 잠기면서 생기며 해당지역을 보면 수심이 깊은 지역처럼 보이지만 강줄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심이 깊은 곳처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지역을 보면 이천리가 훨씬 넘는 거대한 강줄기를 볼수 있습니다.



중간 강폭이 3km가 훨씬 넘는 거대한 강줄기로 보이며 땅의 파임이 일정하고 깊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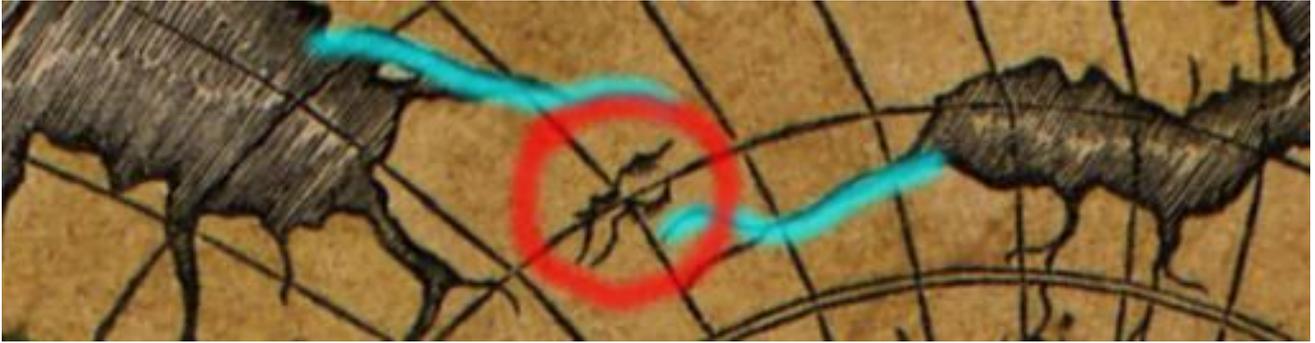


수심이 깊지 않은 맑은 바다 속이어서 당연히 보일 텐데 ?들을 보면 온통 지형을 흐리게 처리를 해서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약간씩 거대한 강줄기의 흔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줄기는 육지의 흔적이기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이며 뉴질랜드 근처에서 흔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4번 지역을 보면 1531 Orontius Fineus 에서 PATARIS의 남쪽지역으로 특이한 지형이 있습니다.



고지도에서는 거대한 강 사이에 있으면서 대륙의 경계가 되는 산을 그렸으며 현지형에서도 비슷한 지형을 보게 됩니다. 온통 흐리게 망가뜨려서 약하게 보이지만 거대한 강이 바다로 흘렀던 지형으로 보입니다.



해당지역에는 Macquarie Island 라는 섬이 있지만 멀리서는 잘 안보이게 온통 구름으로 덮여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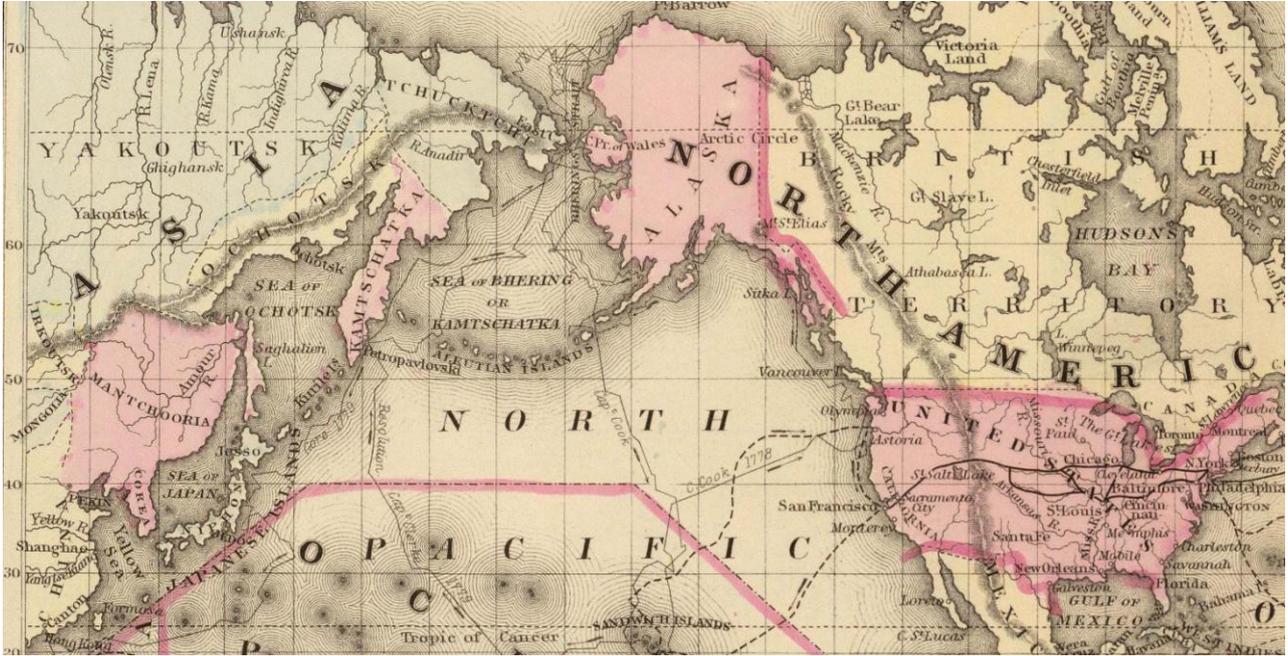
망망대해 수심이 낮은 지역에 덩그러니 폭 5km 길이 30km가 넘는 커다란 섬 하나가 있는 것으로



수심이 낮았을 16세기에는 200km가 넘는 깎아지른 산맥으로 PATARIS지역을 지키는 천험(天險)의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7. 뉴질랜드는 新濟州(신 제주)다.

대조선의 황제국 동국조선은 근대에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열강들의 독립으로 많은 영토를 잃었으나 19세기 말에도 전세계에 영토가 있는 지구에서 땅이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아래 1884년 고종황제시절의 세계지도를 보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국조선 COREA의 영토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84 Samuel Augustus Mitchell <http://www.davidrumsey.com>

미국과 알래스카 캄차카 만주리아와 남미에서 아프리카까지 전세계에 영토가 있었던 대조선 COREA에 탐라지역은 해수면상승으로 남양(AUSTRALIA)과 NEW(신) ZEA(濟, 제) LAND(州, 주)로 분리 되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라고 하지만 분명히 NEW(신)+ ZEA LAND(濟, 제+ LAND)로 新濟州(신 제주)인 것입니다.

## 8. 남양(南洋) 과 제주(濟州)와 거문도(巨文島)

19세기말 영국은 대조선의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유합니다. 거문도는 해수면 상승으로 제주도에서 분리된 섬으로 일명 거마도라고도 불리는 섬으로 거문도는 당시의 세계정세의 중심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이 자문을 보내옵니다.

고종 22 권, 22 년(1885 을유 / 청 광서(光緒) 11 년) 3 월 20 일(기미) 7 번째기사

중국 북양 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이 거문도(巨文島) 사건과 관련하여 보내온 편지에, "귀국의 (1)제주(濟州) 동북쪽으로 100여 리 떨어진 곳에 거마도(巨磨島)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문도입니다. (2)바다 가운데 외로이 솟아 있으며 (3)서양 이름으로는 해밀톤[哈米敦] 섬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생략... 구라파(歐羅巴) 사람들이 (4)남양(南洋)을 잠식할 때에도 처음에는 다 비싼 값으로 땅을 빌렸다가 뒤에 그만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거마도는 듣건대 황폐한 섬이라 하니, 귀국에서 혹시 그다지 아깝지 않은 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홍콩 지구 같은 것도 영국 사람들이 차지하기 전에는 남방 종족 몇 집이 거기에 초가집을 짓고 산 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 경영하여 중요한 진영(鎭營)이 되었고 남양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섬은 동해의 요충지로서 중국 위해(威海)의 지부(支阜), 일본의 대마도(對馬島), 귀국의 부산(釜山)과 다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위의 글은 청국이 동국조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을 구라파사람들한테 빌려주고 뺏겨서 세도 못 받으시면서 거문도도 뺏기실 겁니까? 그러다 다 뺏기시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영국을 나가게 하시는 게 나으실 거 같습니다. 여기서 남양은 반도조선사에서 말하는 경기도 남양이 아니며 호주를 말하는 것으로 정황상 남북전쟁에 패한 남부 사람들에게 땅을 돈 받고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 9. 거문도의 조건

1번 동해의 요충지로 제주에서 동북으로 100여리(40km)

2번 바다가운데 외로이 솟은 섬이다. (주위에 섬이 없고 섬이 멀리서 보일 정도로 큰 산이 있다.)

3번 서양이름으로 해밀톤[哈米敦]섬이다. (거문도는 조선땅인데 이름은 해밀톤? 해밀톤항이 있기 전부터 서양인들에게 해밀톤섬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 10. 현재의 거문도는 조작지명이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의 거문도는 제주라는 섬에서 64km(160리)정도로 거리조건이 맞지 않으며 20km내에 많은 섬들이 있으며 높은 산이 없으며 영국군 묘지부터 모든 것들이 기록들과 맞지 않는 가짜였습니다.



이제 뉴 제랜드가 제주도와 거문도(거마도)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 11. 거마도는 신제주(NEW ZEA LAND) 복섬이다.

1번 제주에서 동북으로 100여리(40km)에 거마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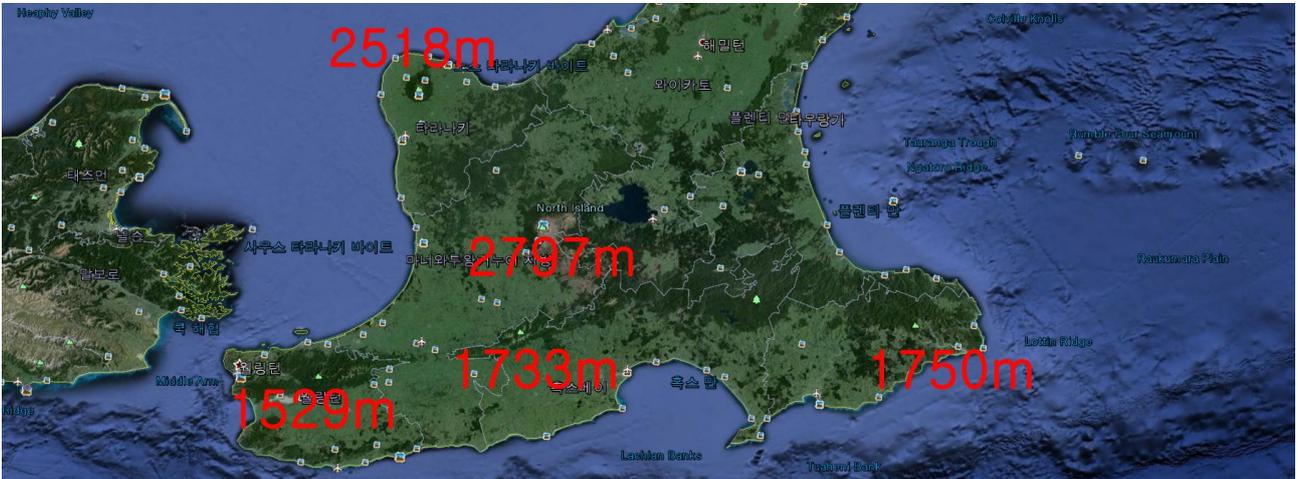
복섬은 남섬의 동북에 있으며 두 섬사이는 22km~49km로 100여리의 조건에 맞습니다.



2번 NEW ZEALAND 복섬은 북으로 사천리, 동으로 이만리에 섬이 거의 없습니다. 망망대해



외로이 솟았다는 말은 섬에 높은 산이 있다는 말이며 북섬에는 2500m가 넘는 산들이 모여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보면 수평선 위에 높은 산이 보였을 것입니다.

12. 거마도( 巨磨島) Hamilton섬은 뉴질랜드 북섬이다.

태평양에 외로이 솟은 섬 중 Hamilton이란 지명이 있는 섬을 고지도들에서 찾아보면



1945 San Francisco Examiner

뉴 제랜드 북섬에 Hamilton이란 지명이 커다랗게 보입니다. 지명이 몇 개 없는데도 표시되는 대표적인 지명으로 보이지만 고지도조작 때문인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고지도들중 Hamilton을 표시한 지도들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표시된 지도들은 아주 드물게 볼수 있었습니다.

뉴 제랜드 북섬에 Hamilton을 표시한 지도들



수많은 헤밀턴이란 지명들이 전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망망대해의 해밀턴섬은 뉴 제랜드 북섬 한곳이며 당연히 뉴 제랜드 남섬이 구한말의 제주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한말에 영국이 해군기지를 건설했던 거마도는 뉴 제랜드 북섬이며 제주도는 현재의 뉴질랜드인 뉴 제랜드임을 이상의 고지도들과 자료들을 근거로 말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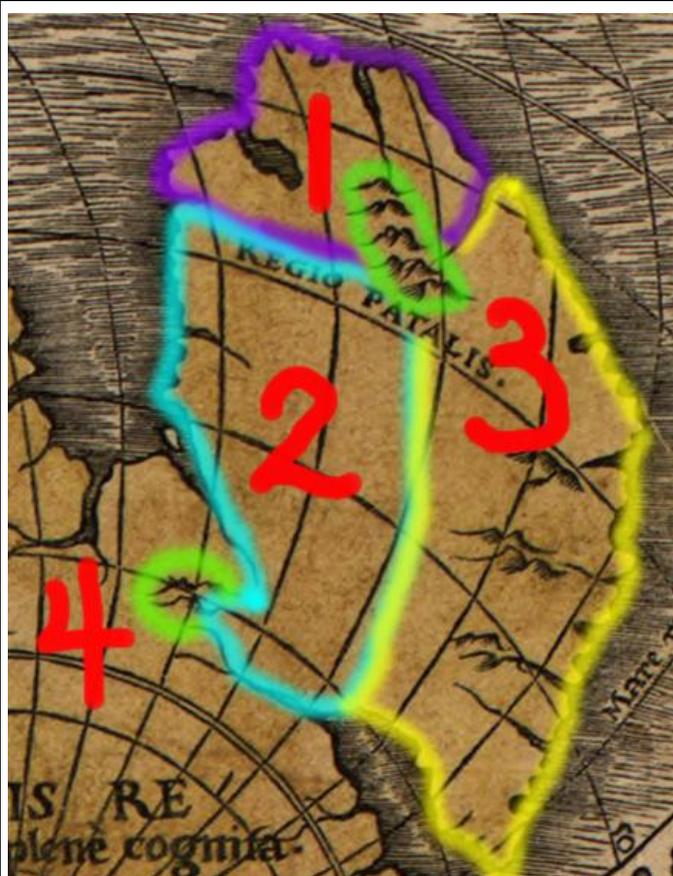
### 13. 한라산은 어디인가?

탐라와 제주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한라산의 위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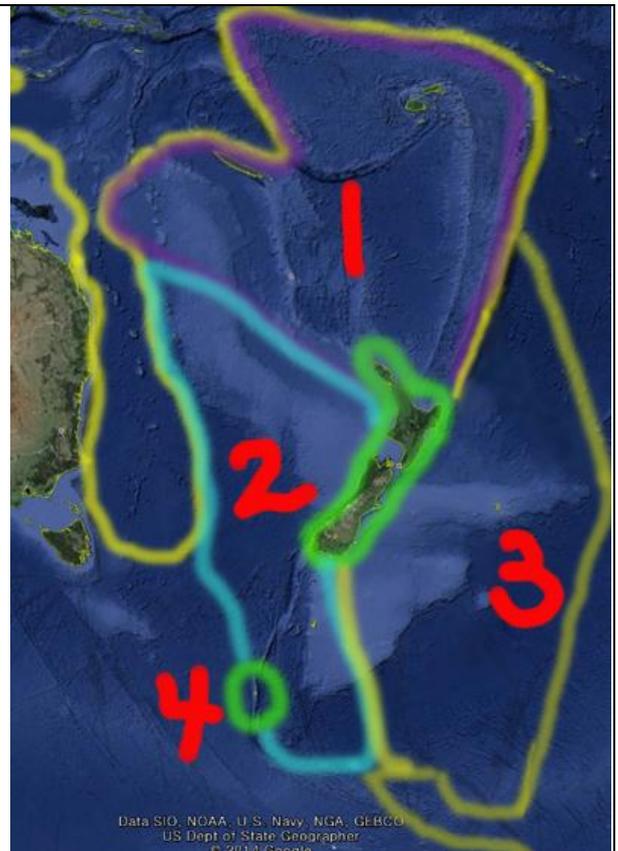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태종 31권,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5월 6일(정유) 1번째 기사를 보면 앞에 생략... "제주에 군(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1)한라산(漢孛山)의 4면(四面)이 모두 17현(縣)이었습니다. (2)북면(北面)의 대촌현(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읍으로 삼고 (3)동서도(東西道)에 정해진(靜海鎮)을 두어 군마(軍馬)를 모아 연변을 방어하였고, 그리고 동서도(東西道)의 도사수(都司守)는 각각 부근의 군마를 고찰하고 목장(牧場)을 겸임하였으나, 땅은 크고 백성은 조밀하고 소송이 번다합니다. (4)동서도(東西道)의 산(山)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목사(牧使)가 있는 본읍(本邑)을 왕래하려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 때에 갔다가 오는 데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실록을 한부분씩 보면서 1531년 Orontius Fineus 지도의 PATARES 지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 (1) 한라산(漢孛山)의 4면(四面)이 모두 17현(縣)이었습니다. 현은 도시가 아닌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는 넓은지역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원안은 한라산으로 현재의 **NEW ZEA LAND** 가 한라산이었으며.
- (2) 목사(牧使)가 있는 본읍(1. 本邑)은 제주의 북쪽에 있었으며
- (3) 한라산을 기준으로 2, 3번 동서도(東西道)로 나누어졌습니다.
- (4) 동서도(東西道)의 산(山)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에 목사가 있는 본읍(1. 本邑)을 가려면 거리가 멀어서 오래 걸리기에 매우 어렵고 농사를 못 짓는다. 한라산이 매우 큰 산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3번 끝에서 1번 끝까지의 거리는 만리가 넘으므로 말 타고 한달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가 되며 당연히 농사를 짓는 데에는 큰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1531 Orontius Fineus <http://www.loc.gov>



수심이 낮은 지역과 강줄기를 확인한 곳을 육지로 그리면 고지도와 비슷한 형상이 나옵니다.

#### 14. 백록담은 어디인가?

우리 동국조선인들은 조선왕조실록의 백두산과 한라산이 현재의 산들과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가짜들이  
데도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을 노래부르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

한라산에 대한 여러 기록들은 조선왕조실록처럼 조작의 손길을 거친 것으로 보이며 처음 한라산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서 兪菴(면암) 崔益鉉(최익현) 선생의 遊漢拏山記(유한라산기)를 인용하려 하였으나 지리  
설명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용을 하지 않고 백록담의 사진과 위치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주(NEW ZEA LAND) 지역을 면밀히 보니 섬전체가 하나의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높은 산들을 직선으로 재면 1360km 정도로 3 천 4 백리 정도의 거대한 산으로 山南(산남)에서  
山北(산북)의 본음을 가려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그 거대한 한라산이겠습니다.

백록담은 신제주(NEW ZEA LAND) 북섬의 Ruapehu산에 있었습니다.



연중 오랜 기간 눈에 쌓여있는 산으로 정상에 못이 보기에 그리 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470m 550m 정도로 아담하고 아름다운 연못입니다.

신 제주(NEW ZEA LAND)에는 산들이 높고 아름다운 산중호수도 많지만 이렇게 백록담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는 호수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16세기 초중기 영문세계지도들의 다수는 남극대륙을 현재의 세배의 크기로 그렸으며 남극대륙을 현재의 AUSTRALIA와 비슷한 TERRA AUSTRALIS로 표시했습니다.

TERRA AUSTRALIS(탐라, 남극대륙)는 17세기 후반이후의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가 침수되어 AUSTRALASIA가되며 이는 南洋(남양, 남쪽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AUSTRALASIA는 南洋(남양, 남쪽의 바다)이며 땅으로써의 남양은 AUSTRALIA인 호주를 의미합니다.

AUSTRALIA는 구한말 고종황제시절 구라파에서 온 백인들에게 빌려준 COREA 남양으로 호주인들은 동국 조선의 땅인 호주를 세를 내고 빌리다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동국조선의 후예들인 KOREA에 그간의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호주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탐라(남극대륙)는 17세기 후반부터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들이 점점 바다에 잠기게 되었을 것이며 東國 朝鮮(동국조선) 全羅道(전라도) 濟州島(제주도)로 보이는 만리의 광활한 PATARIS지역도 저지대가 침수되어 대부분의 육지가 바다에 잠기게 되어 뉴질랜드만 남게 되며 이러한 PATARIS침몰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비슷한 이름의 ATLANTIS(아틀란티스)이야기를 가공하여 적극적으로 퍼트리는 것입니다.

PATARIS는 현재의 뉴질랜드주위에 드넓은 지역에 있었으며 탐라를 의미하는 여러지명들과 유사하며 여러 고지도들을 종합해 볼 때 탐라를 의미하는 지명입니다.

PATARIS가 있었던 뉴질랜드 근처의 대부분지역은 자세히 볼수 없도록 화면을 망가뜨려서 볼 수 없으나 육지의 흔적인 수많은 강줄기들의 흔적들을 바닷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의 고지도들에 동국조선 COREA는 북미에서 아프리카까지 전세계에 영토가 있었으며 현재의 뉴질랜드는 현재 뉴질랜드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NEW(신)+ZEALAND(濟,제+LAND)로 해수면상승으로 제주의 대부분이 바다에 가라앉고 생긴 新 濟州(신 제주)인 것입니다.

1885년 영국이 해군기지를 건설한 거문도(巨文島)는 헤밀턴섬으로 불렸으며 여러 고지도들에 Hamilton이 표시된 곳은 신제주(NEW ZEA LAND) 북섬입니다.

동국조선인들의 한라산은 시기에 따라 다르며 동국조선초기의 한라산은 뉴질랜드이며,

구한말의 조선인들이 기억하는 백록담은 신제주(NEW ZEA LAND) 북섬의 Ruapehu 산에 있습니다.

**676년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新羅(신라)는 세계의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나라는 자신들이 피땀 흘려 빼앗은 백제와 고구려의 땅들을 신라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상실하고 신라는 지구의 중국이라고 자부하던 당나라를 무참히 깨버림으로 지구의 중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의 영토에 있는 수많은 신라의 지명들은 지금도 고지도들에 남아 있었습니다.

SINA, SILLA, SERRAS, SILLE, LOMA 등 찾아보면 더 많은 신라의 지명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耽羅(탐라)는 국명에서 알수 있듯 新羅(신라)와 불가분의 관계로 16세기 고지도들에 탐라는 남극대륙이었고 현재의 세배 크기의 AUSTRALIS였으며 그 안에는 신라를 의미하는 서라(SERRAS)와 신레(BRA SILLE)가 있었으며 탐라를 의미하는 PATARIS 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耽羅(탐라)는 17세기 후반 이후 해수면상승으로 점차 바다에 잠기면서 거대한 대륙은 커다란 여러 개의 섬으로 분리됩니다. 현재의 남극대륙과 AUSTRALIA(호주)와 NEW(신) ZEA (濟제) LAND(州주)로 분리되며 PATARIS지역은 동국조선의 濟州(제주)가 있었던 지역으로 해수면상승으로 대부분 지역이 바다에 잠기어 한라산만이 섬으로 남아 NEW ZEA LAND(신제주)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동국조선 COREA의 후예들과 대한민국과 모든 인류가 알기를 바랍니다.